

성령과 지혜로…사랑과 섬김의 삶을 다짐하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서품식’

염주동성당서 사제 2명·부제 8명
사제·수도자·신자 1800여명 축복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7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염주동성당에서 광주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주례로 사제·부제 서품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 1800여명이 모여 축복의 순간을 함께했다.

이날 김요셉 부제와 안지원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고, 허근·이동규·최호선·김정철·이정웅·남정준·이태운·김태식 등 8명은 부제품을 받았다. 제단 앞에 선 이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서품식을 기다리는 성당 안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들뜬 기운이 감돌았다. 새 사제와 부제의 출신 본당 신자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사진을 찍거나 서로 인사를 나누며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한 신자는 “서품식은 신부님들이 새로 태어나는 날과도 같다”며 “매년 와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사곡으로 시작된 서품미사는 말씀 전례와 서품 예식, 성찬 전례 순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서품식이 시작되자 서품 후보자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또렷한 목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미소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엄숙한 의식 속에서도 새 출발을 축하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옥현진 대주교는 강론에서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들은 이제 부제와 사제로 서품된다”며 “이들은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봉사하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하느님 백성에게 헌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제품을 받는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하듯이 하느님의 백성에게도 가까이 봉사하며 성령과 지혜로 가득 찬 훌륭한 증인이 되라”며 “복음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복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2026년 사제·부제 서품 미사’가 7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동성당에서 열렸다. 옥현진 대주교의 주례로 열린 서품식에서는 2명이 사제품을, 8명이 부제품을 받았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음을 실천하는 일꾼이 되라”고 당부했다.

또 사제품을 받는 이들에게는 “여러분은 스승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하느님의 법을 묵상하며 읽고,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성실한 삶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며 “언행일치의 사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언행일치의 삶을 강조했다.

미사가 이어지는 동안 신자들은 미사포를 쓰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론을 듣다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강 모(67) 씨는 “지나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오늘 서품식을 보니 올해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서품 후보자들은 제단 앞에서 교회에 대한 순명과 평생 복음에 봉사하겠다는 서약을 바쳤다. 안수 예식에서는 옥현진 대주교가 차례로 후보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의 은총을 청했다.

새 부제들은 소속 본당 신부의 도움을 받아 영대와 부제복을, 새 사제들은 영대와 제의를 입으며 서품 예식이 마무리됐다.

이날 사제품을 받은 김요셉 사제는 8일 오후 7시 30분 월곡동 성당에서, 안지원 사제는 같은 날 오전 10시 조례동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김재용 작 ‘Donut Painting Series’ 일부



“도넛은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도넛을 보니 눈까지 달콤한 느낌이 되네요! 작품들을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는 느낌이에요!”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디저트, 식사인 빵과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커피를 소재로 구성된 이번 전시 너무 좋았어요. Happy today”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도넛, 빵 그림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먹음직스러운 빵 그림은 기분을 업시킨다.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빵과 커피는 선호하는 기호품 가운데 하나다.(누군가에게 한끼의 근사한 식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따끈한 커피와 달달한 빵이 입맛을 돋운다.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오는 13일까지 진행 중인 ‘신세계 제과점: 오늘도, 빵과 커피’전.

친근한 소재인데다 기호품이다 보니 평소보다 관람객들 발길이 많이 이어진다. 그림에서 배어나오는 달콤함과 고소함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려는 듯하다.

김영준, 김예지, 김재용, 박모레, 루나양, 요일, 이선희, 이슬로, 씨비노, 혜진 작가 등 모두 10인이 참여했다.

오늘도, 빵과 커피

1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커피와 빵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먹으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단순한 음식이나 기호품이 아닌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필수품이었다.

김재용 작가의 아가자기하면서도 화려한 도넛 그림은 ‘눈으로 보는 맛’을 선사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에게 도넛은 그 자체로 브랜드다. 그의 도넛은 개별성이 강조된 오브제이자 ‘유희하는 오브제’로 소비사회 욕망의 대상이면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선물로 전이된다.

김예지 작가의 디저트를 표현한 작품은 냄새는 물론 질감, 맛, 모양 등을 한기시킨다. 하나의 선물상자처럼 구획된 작품 구성은 단아한 미(美)와 맛있는 미(味)를 선사한다.



씨비노 작 ‘warm wishes’

다 개성적이며 맛깔스럽게 풀어낸 전시”라며 “작품들을 통해 추운 날씨를 따스하게 녹일 수 있는 감성을 충전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빵을 담을 그릇까지도 먹음직스럽게 구워낸 요일 공방의 도자기를 비롯해 자신만의 커피를 찾아 전국 카페를 찾다니며 기록한 이선희 작가의 커피 드로잉도 만날 수 있다.

백지훈 큐레이터는 “빵과 커피라는 친근한 소재를 작가들이 저마다



시향낭 회원들이 최근 남구 노대동 조선회관에서 신년회를 갖고 올해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시향낭 제공>

활동이 좋은 소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굿모닝

뉴모닝



조근호 작품전, 31일까지 공동 리아트센터

새해를 맞아 신년의 기운이 넘치는 전시가 열린다. 전시 표제부터 밝고 상쾌한 ‘굿모닝, 뉴모닝-몽치산수’가 그 것.

조근호 작가가 오는 31일까지 동구 공동 리아트센터에서 여는 작품전은 새로운 아침을 여는 기운으로 가득하다.

지난 1일 매각해 1월 내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늘의 시대 안부가 환기하는 의미도 사유해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산과 강, 자연의 변화 등을 모티브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다. 철마다 바뀌 입는 산수의 색은 시간의 흐름과 새로운 일상을 상징했다.

조 작가는 매일을 일기처럼 기록하며 그날의 생각과 감정, 사회적 현실에서 느낀 균열을 하나의 덩어리로 문체냈다. 그림에 투영된 노고는 누적을 넘어 회복과 어떤 위로로 다가온다. “여럿이 한데 모여 덩어리를 이루다”는 뜻의 ‘몽치’는 남도의 산하, 특히 무등산이 지닌 덕스러운 기질과 성정을 함의한다.

‘일출’은 디자인 같기도, 동화의 표지 같기도 한 작품이다. 일출에서 어떤 희망이나 정열보다 밝음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단순화된 구조와 자연이 발하는 의미와 주제는 심오한 작품보다 더 깊고 예술적이다. 지난 시간의 상흔, 상처 등이 무화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낙관하면서도 따뜻하게 감싸는 일출의 힘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기획을 맡은 남궁운 큐레이터는 “‘안녕하십니까’는 상식과 불안이 겹친 일상에서 관성적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다”라며 “새해를 맞아 서로의 안부도 묻고 안녕을 기원하자는 취지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어부터 미술·음악·신체활동까지 고려인마을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새해를 맞은 광주 고려인마을이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다. 공부는 물론 미술과 음악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배우고 표현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

광주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대상 학습·문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은 고려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일 오후 3시부터 한국어와 기초학습 보충, 독서 지도, 학습 코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미술·음악·신체활동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40여명의 참여 청소년들은 숙제 지도와 소규모 활동을 통해 일과를 마무리하고, 자유로운 표현 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광주송정다문화문화도서관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새해 들어 학부도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함께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려인마을청소년문화센터는 2005년 지역아동센터로 출발해 후원과 공공 지원을 거쳐 2017년 현재의 청소년문화센터로 전환됐다. 이후 고려인 청소년 100여명의 방과 후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를 통해 주위를 물들이자’ 시향낭 신년회

출판기념회·시토크·문학상 수상 등

지역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시향낭(대표 김보영) 회원들이 최근 남구 노대동 조선회관에서 신년회를 갖고 올해 활발한 문학활동을 다짐했다.

결성된 지 올해로 3년째인 시향낭은 ‘시의 향기로운 주머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시를 통해 주위를 물들이자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현재 회원은 24명이며 강대선 시인이 지도를 맡고 있다. 지난해 시향낭은 회원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과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시집 출판기념회, 문학 기행, 수상 소식 등 풍성한 활동을 전개한 것.

정관호 시인의 시집 ‘화도’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화순 연

두리 숲장에서 시소담 개최, 경기도 가평·인제·남양주 다산 정약용 생가 방문 등 문학기행이 열렸다. 또한 ‘오월 기억 토크 콘서트’, 강대선 시인의 ‘시의 날개를 달다’ 시 토크, 김예린 시인의 제2집 ‘누군가의 밤은 매듭으로 온다’, 시소담 이선주 시인 ‘니체의 별’ 출판 기념회도 펼쳐졌다.

회원들의 수상 소식도 잇따랐다. 정순영 시인(샘문학 신춘문에 우수상)과 정예린 시인(샘문학 특별작품상)이 지난해 4월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이둘임 시인은 DMZ 문학상 장원, 강진주 시인 장려상 수상, 포천 이해조 문학상에 김정자 시인이 수상하는 등 회원들의 창작활동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

정관호 시인은 “지나해에는 회원들의 출판 소식, 문학상 수상 등이 많았다”며 “올해도 시향낭 회원들의 활발한 창작